



'25.12.1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·태

○ 韓, 공중협박·거짓 신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제기

- 12.8 언론은 경찰청이 지난 8월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다수의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남성에게 약 125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
 - ※ 경찰청, 공중협박·거짓 신고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여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 표명

○ 韓 국무총리, 재외공관 안전을 위한 대응계획 사전 마련 지시

- 12.9 언론은 「김민석」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전쟁, 내전, 테러, 초국가범죄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전 대응계획 마련을 강조했다고 보도
 - ※ 김 총리는 “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이 준 첫번째 지침은 안전이었다”며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사건 등 국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부언

중·동

○ 예멘, 알카에다 2명 美 무인기 폭격에 피살

- 12.9 언론은 예멘의 마리브주 일대에서 미국의 무인기 폭격으로 알카에다 대원 2명이 살해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현지 보안군 소식통이 제보했으며 예멘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공식발표는 없다고 보도

미·주

○ 美 국방부 장관,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알카에다에 비유

- 12.7 美 국방부 장관 「피트 헤그세스」가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에 비유하면서, 계속해서 이들을 끝까지 제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

○ 美, 구토유발 독성곰팡이 반입 中 연구원 추방

- 12.3 언론은 미국으로 생물학적 병원균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던 중국 여성이 유죄 판결 후 추방되었으며, 美 FBI는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
- ※ 미시간 대학교에서 근무했던 中 국적 연구원 「원칭 지안」은 공모자인 남자 친구를 통해 곰팡이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유죄 판결 후 추방

유럽

○ 俄, 테러 등 유해 콘텐츠 유포 혐의로 게임플랫폼 차단

- 12.4 러시아 통신 규제 당국은 게임 플랫폼인 '로블록스'가 테러 정당화, 극단주의 등 유해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, 자국에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접속을 차단
- ※ 언론은 러시아가 그간 자국 내에서 메타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 서방 콘텐츠·메시지 플랫폼을 지속해서 규제, 차단해왔다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부르키나파소, 테러·반역·간첩죄에 사형제 부활

- 12.5 언론은 부르키나파소가 테러, 반역, 간첩 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 지난 '18년 폐지되었던 사형을 부활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으며, 현지의 정세와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하다고 부언
- ※ 언론은 부르키나파소에 대해 '22년 두 차례의 쿠데타 끝에 군정이 정권을 잡았으며, 영토의 40%가 정부 통제의 밖에 있는 상태라고 설명

○ 나이지리아, 학생 100명 석방에도 여전히 160명 피랍

- 12.8 언론은 지난달 21일 나이지리아 니제르주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된 가톨릭 학교 학생 중 100여 명이 석방되었으나, 여전히 160명이 행방이나 생사가 불명확한 상태로 납치되어 있다고 보도

역사 속 테러사건

美, 뉴욕 맨하튼 지하철 자폭테러

- '17.12.11 오전 7시경 뉴욕市 맨하튼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「아카 예드 울라(27세)*」 가 사제폭탄을 이용한 자살폭탄테러를 시도, 3명 경상 및 범인 중상
 - *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로 '11년 미국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
- 경찰 조사 결과, 범인은 사제폭탄을 허리에 두르고 자살폭탄테러를 시도하였으나, 제작 미숙으로 인한 화약류 미점화로 파이프가 폭발하지 않아 본인은 중상을 입고 주변 시민 3명이 경상에 그친 것으로 파악
 - 또한, 범인은 '14년경 ISIS 선전물을 접한 뒤 극단주의 사상에 동화되어, 범행 1년 전부터 폭발물 제조법을 연구하여 금속 나사를 채운 파이프 폭탄을 완성하여 범행을 시도한 '외로운 늑대'형 테러로 조사
 - ※ 범인은 범죄경력이 없고 과거 테러세력 연계 여부 등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관찰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, 단독 범행인 것으로 확인

테러 상식

< 파이프 폭탄(Pipe bomb) >

- (정의) 사제폭발물의 한 종류로서 폭발압력 증대를 통한 살상력 극대화를 위해 끝단이 막힌 금속류 파이프를 폭탄용기(case)로 사용하는 폭발물
- (구성) 타이머(점화버튼), 기폭장치, 폭약(화약), 밀폐된 금속류 파이프 등으로 구성되며, 추가로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못·나사·금속조각을 파이프 안에 넣거나 외부에 부착
- (원리) 타이머 작동 또는 직접 점화 버튼 작동 시 1차 기폭장치(뇌관) 폭발 후 2차로 폭약(화약류)이 폭발, 파이프 내부압력이 증가하여 응축되다가 임계압력 도달 시 파이프가 파괴되면서 깨어진 파이프 조각과 부가된 못·나사·금속 조각이 주변에 비산되어 인명 살상
- (비교) △ 응축압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'압력밥솥폭탄'과 유사, △ 못·금속 조각으로 살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'못(nail) 폭탄'과 유사